

다산포럼

재난 취약성과 회복탄력성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위험사회의 도래와 함께 취약성과 회복탄력성(실체나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원래의 안정된 상태를 되찾는 성질이나 능력)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시대를 진단하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이를 더욱 뚜렷하게 부각시켰다. 코로나19의 초기 국면에서는 어떤 사회 집단에서 감염률과 치명률이 높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하면 사회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였다. 그러나 이제는 재유행에 대비하면서 정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졌다. 취약성 문제를 넘어 회복탄력성이 재난 극복 논의의 중심으로 들어온 것이다.

최근의 재난 정책 패러다임은 취약성 논의를 넘어서서 회복탄력성을 강조하

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재난이 일과성이 아니라 자주 빈발하며 피해의 규모가 매우 커서, 주도면밀할 회복 계획이 없으면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회복탄력성은 홀링이라는 학자가 생태학적 맥락에서 사용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외부적 충격이 진행되어 정점에 이르는 단계와 정상으로 회복되는 단계로 구분되고, 후자를 규정하는 것이 회복탄력성이다. 이 개념은 심리학과 의학 그리고 각종 사회과학에 채택되어 널리 확산되었고, 특히 재난 연구 분야에서 핵심적 용어로 자리 잡았다.

사회적 회복탄력성은 하나의 사회적 단위나 집단이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변화에 의해 나타난 외부적 스트레스나 혼란에 대해 집합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것은 첫째,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하여 당면한 위협에 반응할 수 있는 대처 능력 둘째,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미래의 위협을 예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조정할 수 있는 예방적 적응 능력 셋째, 넓은 사회 정치적 영역에서 설비와 도움 장치들에 접근하고 의

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제도를 바꿀 수 있는 혁신 능력 등으로 구성된다.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회복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구하지 않고 타자를 비난하지 않는다. 또한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상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를 사회적 지원으로 연장한다면 회복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들의 호소에 반응해야 한다. 이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사회적 회복탄력성 연구에서는 무엇이 진자 위협인지를 인식하고 식별할 수 있는 능력, 사회적 네트워크나 제도의 중요성,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서의 개입을 강조해 왔다. 과연 한국 사회의 정치나 언론, 또는 시민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질문할 필요가 있다.

회복탄력성이란 개념이 지방정부나 도시 연구에 쓰이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어느 도시나 기후와 환경 약

화, 자원 고갈과 인프라 손상, 혹은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한데 문제는 이런 충격을 흡수하면서 시민들이 정상적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각각의 도시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깨닫고 있는 교훈의 하나는 중앙 정부뿐 아니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코로나 초기 국면에서 대구가 직면했던 어려움이나, 최근의 코로나 재유행 상황에서 서울이나 광주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은, 한국의 도시들이 얼마나 회복탄력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시험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잠재적인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집중적으로 대처해야 할 취약성을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한다.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시 내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 정부나 다른 지방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한국의 주요 도시에서 생명윤리에 충실하면서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가를 수시로 질문할 필요가 있다.

청춘 특·특

젠더 문제, 문학은 무시하지 않는다



조서희 광주대 문예창작학과 2학년

'나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위 문장으로 시작하는 소설 '음복'은 '2020 제11회 젊은 작가상'의 대상 작품이다. '젊은 작가상'은 출판사 문학동네에서 2010년에 제정된 문학상이다. 젊은 작가상이라는 이름과 같이 젊은 작가들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등단 10년 이내 작가들의 작품에서 수상작을 뽑는다.

대상작인 '음복'은 강화길이라는 작가가 '문학동네' 2019년 가을호에 발표한 단편 소설이다. 소설은 주인공이 결혼 후

첫 제사를 지내러 시가에 간 것으로 시작된다. 신혼부부가 제사를 지내다는 평범한 보은이 이 줄거리는 사실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박힌 젠더 문제를 고발하고 있다.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온 '시할아버지', 치매가 걸린 '시할머니', 그 둘의 자식인 '고모'와 '시아버지', 그리고 주인공과 '남편'. 삼대에 걸처진 인물관계도는 여성 혐오가 어떻게 가족 내에서 전해 내려왔는지 보여 준다. 단순히 장남이라서 받은 혜택과 애정을 받고 자라지 못한 여성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도 복잡한 것이다.

이는 '문학동네' 2019년 가을호에 수록된 이수형 문학평론가의 서평에서도 알 수 있다. 이수형 문학평론가는 이 소설의 장점을 '삼대에 걸친 가족 내부에 겹겹이 쌓인 젠더 문제를 단편 분량 안에서 교묘하게 짚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표현했다.

이처럼 강화길 작가가 젠더 문제를 소

설 속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시킨 건 '음복'이 처음이 아니다. 강화길 작가의 또 다른 젊은 작가상 수상작인 '호수: 다른 사람'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가하는 데이트 폭력의 실상을 은밀하게 그러나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젠더 문제는 한 작가만의 특성으로 볼 수 없게 됐다. 젠더 문제는 현재 문학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이는 100만 부를 판매해 영화로도 제작된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이 사회에 전한 파급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소설뿐만이 아니다. 2019 제37회 김수영 문학상을 받은 이소호 시인의 '갯벌링' 또한 사회가 여성에게 가하는 여성 혐오적 폭력을 날낱이 고발한 시집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인은 시집을 "일상의 폭력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마디로 정리했다. 출판사 '민음사'에서 나오는 격월간 문학 잡지인 '릿터(Littor)' 또한 '커버스토리: 여

성·서사'라는 주제로 2018년 8월 출간했다.

문학은 언제나 사회를 고발해 왔다. 60년대에는 6·25 전쟁이 쓸고 간 대한민국의 참담함을, 80년대에는 5·18 민주화 운동을 통한 민주주의와 독재 정권에 대한 작품을 발표했다. 더 이상 젠더 문제는 인터넷에서만 뜨거운 감자가 아니다. 국민이 말하고 여성이 말하며 대통령이 지 말하는 주제가 됐다.

작가에게 주어진 발언권은 오로지 작품뿐이다. 젠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젠더 문제를 고발하는 작품은 끝없이 나올 것이다. 독자로서 우리는 이러한 작품들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작가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 또한 늘려야 한다. 책은 우리가 또 다른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많은 시사적인 작품들이 세상으로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조용하고 빠른 전파' 방역 고삐 바짝 조여야

광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2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이후 열흘 동안 8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만큼 감염 속도가 빠르다. 여기에 확진자 열 명 중 네 명 가량은 뚜렷한 증상이 없다. '조용한 전파'가 확산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어제 오후 6시 현재 광주 지역 누적 확진자는 117명이다. 이중 지난달 27일 이후 열흘 동안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84명에 이른다. 재확산이 시작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추가 환자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방역 당국은 빠른 감염 속도를 주시하고 있다. 통상 코로나19 잠복기는 2주로 알려졌지만 광주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한 후 수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전파 속도가 빠른 편이다. 전파력 또한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최근 일주일간 재생산지수를 평가한 결과 전국 평균이 1.06 정도인데 호남권은 1.34로 나타났다. 재

생산지수란 감염병 환자 한 명이 얼마나 많은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2차 유행 이후 확진자 가운데 40% 이상이 무증상일 정도로 '조용한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광주 지역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가 대전 방문판매 업체 등과 연관되는 등 대부분 확인됐다는 점이다. 감염원이 파악됐다는 것은 사실상 통제권 내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번 추가 코로나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그제부터 교회 등 종교 시설은 물론 학원과 지하 다중이용시설 등을 고위험 시설에 추가해 운영 자체 조치를 내렸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 시설과 시민 개개인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다.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 방역의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하겠다.

반인권적 체육문화 이번엔 꼭 개선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고(故) 최숙현 선수(철인3종경기)에게 폭행·폭언한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선수 2명 등이 국회에서 관련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이번 사건 이후 경주시청 팀 소속 다른 선수 피해자들까지 나서 폭력 외에 성희롱까지 당했다는 증언을 내놓고 있는데도, 피해자는 있는 데 가해자가 없는, 어디선가 본 듯한 쓸데난 풍경이다. 문득 '광주의 5월'이 겹쳐진다.

최 선수는 경주시청팀 감독과 '팀 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등에게 술한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 관계기관에 수차례 진정을 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 지난 2월부터 대한철인3종협회나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는 물론 경주시청과 경주경찰서 등에도 피해 신고를 했지만 진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 준 곳은 거의 없었다.

최 선수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하루 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고, 마지

막으로 엄마에게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엄마가 무슨 힘이 있으리라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의문받았던 기녀린 소녀가 마지막으 호소할 곳은 가족밖에 없었던 것이다. 언제까지 이런 비극을 보아야 하는가. 체육계의 고질적인 폭력문화나 인권침해는 정녕 뿌리 뽑을 수 없는 것인가.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폭력적인 문화는 바로잡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국은 반인권적 체육문화 개선을 약속했지만 말만 요란했을 뿐 개선이 되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진모를 밝히고 엄법에 처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오는 8월 출범하는 스포츠윤리센터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하는 법 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최 선수가 마지막으 남긴 말이 지금도 아프게 귓전을 때린다.

無等鼓

문제인 대통령이 박지원 국정원장,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장관, 임종석·정의용외교안보특보 등으로 안보라인을 새로 구축했다. 거물급 대북통들을 총동원했다는 점에서 정가에서는 '어벤져스'급 인사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는 국민의 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서훈 안보실장은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행 과정

에 깊숙이 관여했다. 한반도 평화에 지속적 관심을 보여 왔던 이인영 내무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의원이라는 점에서 중량감이 있다. 임종석 특보는 문 대통령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밑그림을 그려온 데다 북측이 가장 신뢰하는 인사로 알려져 검색엔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이 기대된다. 여기에 외교 전문가인 정의용 특보는 미국과의 소통 등 측면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박지원 국정원장 카드는 문 대통령과의 정치적 구원 등을 고려할 때 파격이라는 평가다. 문 대통령이 그만큼

한반도 평화의 퍼즐을 맞춰 가야 한다. 특히 남북 경협을 매개로 하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 가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거 6·15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 이 손을 맞잡고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듯이, 그의 '평양대사관' 역시 아직은 꿈일 뿐이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 언젠가, 그가 아니더라도, 현실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임동욱 선임기자·서울취재본부장 tuim@

초대 평양대사

한반도 평화의 퍼즐을 맞춰 가야 한다. 특히 남북 경협을 매개로 하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 가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거 6·15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 이 손을 맞잡고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듯이, 그의 '평양대사관' 역시 아직은 꿈일 뿐이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 언젠가, 그가 아니더라도, 현실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임동욱 선임기자·서울취재본부장 tuim@

기 고

젊은이들에게 희망 주는 '광(光)수저길'



송형택 그린카진흥원 경영본부장

한때 '인구 폭탄'이란 말이 있었다. 폭발적 인구 증가가 사회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인구 절벽과 마주하고 있다.

인구 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그의 저서 '인구 통계 절벽(The Demographic Cliff)'에서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낸 말이다. 40대 중후반의 인구 감소로 대대적인 소비 위축 현상이 발생하고 이는 경제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져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는다 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통계청의 '4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내 출생아 수는 2만 342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망

자 수는 3.3% 늘어난 2만 4628명이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진 인구 자연 감소다.

이런 추세라면 올 한 해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30만 명 이하가 되어 인구 유지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인구 유지를 위해서는 함께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하는데 작년 기준 우리나라 함께 출산율은 0.92명이었고, 이는 전년보다 0.06명 줄어든 3년 연속 사상 최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니 곧 인구 절벽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때에 광주시가 '광(光)수저길'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한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논란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대변하는 용어였다. 하지만 이 광수저길은 말 그대로 환하게 다가오는 꽃길로, 희망의 길이기도 하다.

이처럼 시의적절한 이 정책은 광주시가 추구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보완하는 맞춤형 정책이기도 하다. 국내 첫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이루어진 '광주형 일자리'가 지난 6월 16일 전국 최초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돼 3000여 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빛그린산단 내 62만 8000㎡ 부지에 연간 10만 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을 짓는 프로젝트로 1만 2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함께 근로자의 복지 지원을 확충하는 데도 정성을 쏟아 왔다. 이 사업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을 적정화하는 대신 주거와 육아 등의 생활 복지를 통해 청년들의 고용 절벽을 해소하고자 추진됐기 때문이다. 거점형 공공 직장 어린이집 조성(62억 원), 공동 직장 어린이집(27억 원), 개방형 체육관 건설(100억 원),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개설(696억 원) 등의 사업을 병행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이에 맞추어 6월 초에 광주시가 발표한 '광수저길' 정책은 광주형 일자리 정책의 화룡점정이라는 생각이다, 이 정책의 핵심은 광주시가 내년부터 출생 육아 수당을 출산 가구당 최대 68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광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세대는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아이 150만 원, 셋째 이상은 200만 원을 지급하며, 매월 20만

원의 양육 수당도 받을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간제 보육과 24시간 긴급 돌봄을 실시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도 확대한다. 또한 광주 5개 자치구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발표대로라면 광주는 분명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제도와 환경을 갖춘 도시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는 저출산을 넘어 인구 절벽으로 치닫되는 우리 현실에서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여 시민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행복을 추구하며 광주형 일자리를 찾아온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갖게 하겠다는 것이다.

단순한 일자리만으로는 인구 증가, 출생아 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 반드시 출산과 보육 등 육아 정책, 보금자리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전국 최초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선정에 이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그 기반은 더욱 탄탄해지고 넓어졌다. 이제 광주에 젊은이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광주시가 마련한 광수저길을 걸으며 미래의 희망과 꿈을 이루어 갈 것이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2-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220-0663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52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220-0642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